

시름의 시즌 속 내년 KIA팬 웃게 할 '또다른 미래'가 된다



정해영·이의리·김도영 등 미래들 올시즌 활약 속 내년 기대되는 신인 10명 입단 조대현 "우완 파이어블러로 각인되고 싶어"...이상준 "타격도 잘하는 포수될 것"

시름 많은 KIA 타이거즈 팬들을 웃게한 '미래들'의 활약, 또 다른 미래가 된다.

지난 8일 챔피언스필드에 새로운 '아기호랑이'들이 등장했다. 이날 2024신인 입단식과 환영식이 열리면서 지난 9월 14일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KIA의 선택을 받은 10명의 선수가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KIA에는 최근 눈길 끄는 신인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팬들에게 기쁨을 선물했다.

2020년 1차 지명 선수로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정해영은 첫해부터 볼펜을 지키면서 타이거즈 역사상 첫 3시즌 연속 20세이브를 만들어냈고, 정해영의 광주일고 1년 후배인 이의리는 대가 끊겼던 타이거즈 '신인왕' 계보를 잇는 등 선발 한 축으로 자리했다.

마지막 1차 지명 선수인 김도영은 지난해 경합을 발판으로 올 시즌 주전 선수로 발돋움해 힘과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다. 운영철도 '특급 신인'의 타이틀을 이어갔다. 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고졸 루키' 운영철은 지난 8일 삼성전을 끝으로 올 시즌 25경기에 나와 122.2이닝을 소화해주면서 8승도 수확했다.

여기에 고졸 2년 최지민은 팀을 물론 국가대표 필승조까지 성장했다.

남다른 신인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다음 '떡알'에도 시선이 쏠린다. 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린 강릉고 투수 조대현은 강속구로 어필한다. 몇 년 사이 KIA의 좌완투수들이 대거 성장하면서 '우완'이 귀해진 상황. 그만큼 빠른 공을 가진 우완 조대현에 대한 팀의 기대가 크다.

조대현도 "KIA하면 좌완들이 많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완 투수로 그 사이에 끼어서 역할을 하고 싶다. 우완 파이어블러로 각인되고 싶다"며 "프로에서 통하려면 안정적인 제구가 우선이지만 구속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도 욕심 내겠다"고 언급했다.

또 훌륭한 선배들을 통해 많은 걸 보고 배우겠다



KIA 타이거즈 2024신인 포수 이상준(왼쪽)과 투수 조대현이 지난 8일 입단식을 위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는 각오다.

조대현은 "이의리 작구 구위, 양현종 변화구와 제구, 최지민 패기, 운영철 제구와 함께 정해영 선배님을 닮고 싶다. 롤모델이다. KIA를 대표하는 우완 투수이고 마무리로 이겨야 하는 상황에 마운드에 오르고 있어서 내 롤모델이다"고 이야기했다.

트레이드로 2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에 양도했던 KIA는 3라운드에서는 경기고 포수 이상준을 선택했다.

"생긴 것부터 포수"라면서 웃은 이상준은 "수비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타격은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격도 잘하고 싶다. 1군에서 뛰려면 타격도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서 노력하겠다. 수비에서는 누가 뛰어도 잡을 수 있는 애가 있고, 어디에 꽂혀도 다 막을 수 있고, 어디에 던져도 다 올릴 수 있다. 자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포수 중에서 가장 먼저 뽑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겠다"며 "항상 장비에 자승자강(自勝者強)이라고 써놓는다. 자신을 이겨야 강한 사람이 된다. 고등학교 코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살고 있다. 나오면 해결하더라, 잡더라, 막더라" 그런 인상의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팀의 막내인 운영철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잘 아는 선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봤는데 막상 야구하다보면 선배라는 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후배를 맞게 된 김도영은 "영철이가 후배들 담당할 것이다(웃음). 2년 차인데 프로 입단해서 한참 된 것 같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웃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0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한전KPS 소속 장애인스포츠 선수 입단식'이 열렸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장애인체육회, 선수 20명 한전KPS 입단 지원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선수 20명의 한전KPS 입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한전KPS 소속 장애인스포츠 선수 입단식'에서는 탁구·배드민턴·축구·양궁·역도 등 15개 종목 20명이 입단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과 김현성 사무처장, 신희명 한전KPS 인재채용부장, 홍성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김용임 광주시의원 등도 참석했다.

지난달 12~20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누리집 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된 선수들은 종목별 지정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하며 근로를 대체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종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선수 훈련과 근대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장애인 스포츠 선수 14명의 일자리 조성을 도왔다.

한전KPS는 전남장애인체육회에서 32명, 광주에서 20명 등 총 50명의 장애인 선수단을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고 지역 사회에 장애인 고용 가치를 알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전남사회서비스원,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전남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장애인선수 이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전 선수 이동 지원 협약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최근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장애인선수 이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회 기간 중 중 장애인 선수들이 31개 종목 38개 경기장을 자유롭게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수 이동 서비스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휠체어 1357대, 전동스쿠터 118대, 전동휠체어 222대 등 총 1697대가 24개 종목 30개 경기장을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사도 선수단 이동지원 서비스안내(전남장애인체육회) ▲이동지원 배차 서비스지원(전남사회서비스원) ▲지역 및 권역별

현장서비스 지원(전남지체장애인협회)을 협업하기로 했다.

장애인 선수 이동 서비스는 오는 11월 3~8일까지 대표번호 1899-1110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남에서 보유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장애인택시·임차택시) 250대에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박정현 전남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장애인체전 최초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일정에 맞춰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을 찾은 사도 선수단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전남을 찾는 선수단에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의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아시아챔스리그 향해...광주FC '위대한 도전'

파이널라운드 20일부터 시작 21일 1위 울산과 첫 경기 주목

광주FC가 '1위' 울산현대를 상대로 창단 후 첫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향한 도전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1일 하나원큐 K리그 1 2023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파이널라운드는 34라운드부터 최종 38라운드까지 진행되며 팀별로 5경기씩 소화하게 된다.

1위 울산을 시작으로 포항, 광주, 전북현대, 대구FC, 인천유나이티드 등 파이널A에 진출한 6개

팀은 20일 오후 7시 30분 포항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포항과 인천의 경기를 시작으로 파이널라운드 일정에 돌입한다.

파이널A팀은 K리그1 우승과 AFC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6강 진입에 실패한 FC서울, 대전하나시티즌, 제주유나이티드, 수원FC, 강원FC, 수원삼성엔 파이널B에서 강등을 피하기 위한 '생존 싸움'을 벌이게 된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위해 3위 이상의 성적을 노리는 광주는 21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울산과의 경기로 파이널라운드 일정을 시작한다.

35라운드 상대는 인천으로 28일 오후 4시 30분 홈에서 대결이 펼쳐진다.

광주는 11월 11일 오후 2시 대구FC와의 36라운드 원정경기를 소화한다. 이어 11월 25일에는 전북현대의 안방으로 가서 오후 2시 37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그리고 2023시즌의 마침표를 찍는 무대는 안방에서 펼쳐진다. 12월 3일 광주는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을 상대로 2023시즌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파이널B 그룹의 38라운드 최종전은 12월 2일 오후 2시 동시에 진행된다. 파이널A 그룹의 최종 38라운드 3경기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일제히 시작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김한길·두현석 '베스트11'

광주FC의 전 구단 상대 승리를 합작한 김한길과 두현석이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8일 '하나원큐 K리그 1 2023' 33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김한길과 두현석이 이름을 올렸다.

김한길은 지난 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4분 헤더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경기가 1-

0 광주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골은 결승골이 됐다.

두현석은 왼쪽에서 반대편에 있던 김한길에게 크로스를 올리면서 시즌 7번째 도움을 장식했다.

광주는 김한길과 두현석의 활약으로 파이널라운드에 앞서 진행된 강원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를 기록, 올 시즌 K리그1에서 유일하게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이뤘다. 광주의 K리그1 역사상 첫 기록이기도 하다. 또 이날 승리로 광주는 2위 포항스틸러스를 승점 4점 차로 추격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30일
- 2관 더 닌 2
- 3관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 4관 화란
- 5관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령의 비밀
- 6관 30일
- 9관 만강홍: 사라진 밀서, 극장판 영명이 탐정: 미스터리 가면 ~최강의 대결
- 7관씨네커블 1947 보스톤
- 8관씨네커블 화란, 크리에이터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 2023-10-17(화) ~ 22(일)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소극장, 잔디광장
문의 : 062-613-8233

소리극 <클비츠와의 대화>

일시 :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